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을 찾아보자!

더 넓은 세상, 대외활동 총정리

누구나 취업에 대해 고민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나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 역시 없다. 결국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할 것 없다. 당신에게 대외활동이란 좋은 기회가 있다. 기자는 대외활동의 존재를 모르거나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학교 학우 및 동문의 대외활동 경험을 취재해 소개하고자 한다.



*각 학생 인터뷰 전문은 QR코드에 연결된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 실무가 필요하다면?” 현대자동차 H-점프스쿨



대학생 봉사자가 아이에게 1대1로 공부를 알려주는 모습이다.
(출처: 현대자동차 H-점프스쿨 홈페이지)

❖ **활동 소개** : 현대자동차가 주관하는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의 청소년 및 아동센터와 연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체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다.

❖ **필요 능력** : 고2 수준의 국·영·수 능력,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친화력

❖ **주요 활동** : 주 2회 3시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5명에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 가끔 체육활동 혹은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님의 인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측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직원과의 멘토링, 해당 프로그램 판매들과 교류 활동도 제공해준다.

❖ **추천합니다!**
조광희 (노인체육복지 18) “대외활동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특수교육 직종을 희망해 이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니 저와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미리미리 찾는 경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도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정말 어떤 일이 어울리는지 찾아보고 경험해보길 권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람을” 씨드스쿨



코로나 시절, 김승찬 학우(위)와 멘티 학생이 줌(Zoom)으로 1대1 멘토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활동 소개** : 사단법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운영하는 1대1 멘토링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생 멘토가 청소년 멘티에게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다.

❖ **필요 능력** :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 **주요 활동** : 총 10주 동안 1대1로 멘토가 주 최 측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멘티들에게 필요한 협동심, 리더십과 같은 가치 혹은 적절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10주 활동 중 2주는 멘토들이 TF 기획팀을 꾸려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기도 한다.

❖ **추천합니다!**
김승찬 학우 (스포츠청소년지도 20)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대외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학생들이 개 이러한 청소년 교육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지 알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필수 영양의 시대” 간만에 서포터즈



대외활동 발대식에 참여한 박지윤 학우(우측 첫번째)의 모습이다.

❖ **활동 소개** : 제약회사 간만에사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증진 상품 홍보 활동이다. 온라인으로 숙제 해소제와 간 기능 개선 식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주로 한다.

❖ **필요 능력** : 포토샵, 영상 편집과 같은 디자인 편집 능력, SNS 이해도

❖ **주요 활동** : 월별로 회사 측에서 미션을 내주고 팀원들이 수행한다. 미션은 주로 카드 뉴스 및 홍보 영상 제작, 홍보 사진 촬영이며 활동할 때 제작한 결과물은 모두 간만에 공식 SNS에 업로드한다. 또한, 팔로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SNS 이벤트 역시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진행하기도 한다.

❖ **추천합니다!**
박지윤 (운동건강관리 19) “저와 같이 스포츠 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직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 활동을 추천합니다. 브랜드나 제품 분야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업 전 실무 경험 역시 매우 값진 경험입니다. 나아가 인턴 기회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만에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회사 혹은 제약회사에서 진행되는 대외활동이 꽤 많으니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함께 해결해볼까?” 청년, 세상을 담다



활동에 참여해 공익과 관련한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출처:청년, 세상을 담다 홈페이지)

❖ **활동 소개** : 국내 유일 공익 전문 미디어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와 현대해상에서 주관하는 청년 대상 기자단 활동이다. 저널리스트, 소셜에디터를 꿈꾸는 청년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내의 공익 콘텐츠를 발굴하고 영상 및 기사로 제작한다.

❖ **필요 능력** :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기사 작성 능력, 인터뷰 능력, 영상 제작 경험

❖ **주요 활동** : 현직 기자 및 공익단체(제3섹터) 활동가들의 강연을 들으며 저널리즘, 사회문제, 기업의 솔루션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후 소셜벤처 기업 종사자 및 대표를 인터뷰함으로써 사회 문제 선정부터 해결 솔루션 구상까지의 과정을 기사로 작성한다. 나아가 청년의 시선에서 발굴한 사회문제와 해결 방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다.

❖ **추천합니다!**
이재은 동문 (노인체육복지 18) “어떤 사회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시선에서 발굴한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솔루션을 개발한 사례들을 탐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행운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 생각만 한다면 삶의 지혜는 쌓이지 않습니다. 머릿속 계획을 여러 활동을 통해 검증하며 시야를 넓혀보세요. 지금의 울타리를 벗어나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는 한국체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권 대학판 프리미어리그” SUFA (서울권대학축구동아리연맹, Seoul-area University Football Association)



SUFA리그 개막식에 회장자격으로 참가한 손창현 학우(가운데 오른쪽)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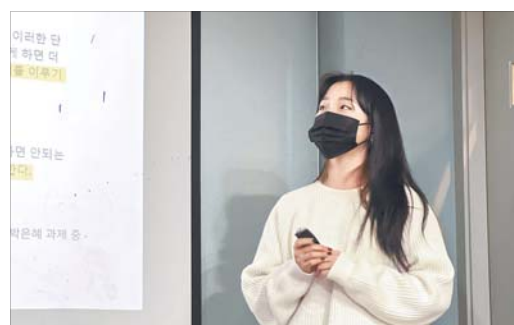
❖ **활동 소개** : 서울권 대학생들의 아마추어 축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연맹이다. 학생들이 직접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권 대학 축구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리그를 진행한다.

❖ **필요 능력** : 뛰어난 의사소통, 위기관리 능력

❖ **주요 활동** : 대회 진행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기도 하고 출전 선수 신분 확인 등 선수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나아가 대회를 조직할 때 운영 방침이나 규정 등을 직접 기획하기도 한다. 또한, 서울시 체육회의 지원과 기업의 스폰서십 유지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직접 기업 인사들과 미팅하는 등 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한 실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 **추천합니다!**
손창현 학우 (사회체육 18, 현 SUFA 회장)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시야를 확장했다고 느낍니다. 나아가 서울시체육회와 기업들을 비롯한 담당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미팅을 진행하다 보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실무적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학우 여러분이 SUFA와 같은 대외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도 쌓고 폭넓은 시야를 정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터 총집합!” SmarterR



스마터 정기 스터디에서 경쟁 PT를 하고 있는 박은혜 학우의 모습이다.

❖ **활동 소개** : 스포츠 마케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파은 이름답게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합동아리다. 주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조별 스터디를 진행한다.

❖ **필요 능력** : 배우고자 하는 의지, 자신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주요 활동** : 스터디는 한주동안 실시한 사례 분석 PT 발표와 팀원간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 관한 모든 내용은 자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다. 더불어, 스포츠 산업과 관련한 주제나 키워드를 설정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SNS에 올린다. 나아가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강연을 듣기도 하며 종종 스포츠 관련 기업 견학을 하기도 한다.

❖ **추천합니다!**
박은혜 학우 (사회체육 19) “미디어, 구단, 공간, 대행사 등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진로를 꿈꾸고 계신다면 관련 활동을 하면서 각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과연 이 활동을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길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울 요소가 반드시 하나씩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야구 현장을 한눈에!” KBO 두산베어스 객원 마케터



두산 베어스 홈구장인 잠실야구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나현수 학우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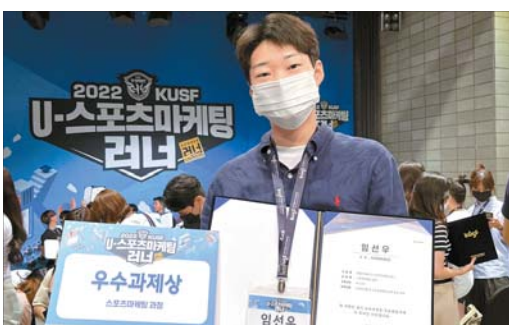
❖ **활동 소개** : 프로야구단 두산베어스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이다. 야구 시즌 동안 구단 내 마케팅팀에서 하는 일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 **필요 능력**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 이미지 편집 능력, 감인한 체력과 정신력

❖ **주요 활동** : 주로 홈경기 때 펼쳐지는 스포츠 이벤트 보조 업무를 한다. 속연도가 쌓이면 대학생 마케터들끼리 직접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임무가 주어질 때도 있다. 또한, 두산베어스와 협약된 광고주들에게 보낼 광고 증명 자료 제작을 돕기도 한다. 나아가 홍보영상, 카드 뉴스, 사진, SNS와 같은 콘텐츠 업무 기획과 제작까지 담당한다.

❖ **추천합니다!**
나현수 (레저스포츠 17) “프로구단 실무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가까워서 볼 수 있고 그 일원이 되어 소속감 역시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스포츠 구단이나 스포츠 브랜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활동은 제 인생의 발판과도 같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꿈꾸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열의가 확신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대외활동이 커리어의 발판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학과 학우들 강력 추천!” KUSF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U-스포츠마케팅 러너



활동 수료식에서 스포츠마케팅 부문 우수과제상과 수료증을 받은 임선우 학우의 모습이다.

❖ **활동 소개** : 선수 출신 및 스포츠 분야를 희망하는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이다. 스포츠마케팅뿐만 아니라 선수 트레이너, 스포츠에디터 분석, 스포츠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 **필요능력** : 하고자 하는 의지, 유연한 협동심

❖ **주요 활동** : ‘러너(Learner)’라는 이름답게 배움이 중심인 활동이다. KUSF측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참가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아가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공모전 발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KUSF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 **추천합니다!**
임선우 학우 (사회체육 21) “KUSF 러너는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스포츠 현장에서 쓰이는 능력과 역량을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점 역시 단과대학에 가까운 우리 학교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이 활동이 선수 출신을 우선 선발한다는 것입니다.(3:1 비율) 그렇기에 우리 학교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선수 출신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대외활동을 경험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 PYC - 월드프렌즈 단기 봉사단(PAS Youth Corps)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심민경 동문의 모습이다.

❖ **활동 소개** :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가 주관하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한국체대생을 비롯한 각 학교의 학생들을 3주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필요능력** : 성실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인내심

❖ **주요 활동** :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

를 현지 어린이들에게 교육해주는 일을 한다. 나아가 원활한 봉사활동 진행을 위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역할도 하며 때로는 협회 봉사단 인솔자들을 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 **추천합니다!**
심민경 동문 (특수체육교육 14) “해외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활동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경험은 백만 원, 아니 천만 원을 내더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인니다. 인생은 20대 초반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라는 특별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3주 동안 아이들을 돕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지 않습니다. 장단컨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체육교육과 후배들에게 낯설 교육 현장에서 막대한 실용성 및 봉사활동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 대외활동,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발대식에 참여해 팀원들과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윤예린 학우(좌측 세번째)의 모습이다.

❖ **활동 소개** : 하나금융그룹 브랜드를 홍보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지속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올해부터 하나금융그룹에서 관리하는 스포츠 구단 및 대회 홍보가 추가되었다.

❖ **필요 능력** : 분야에 대한 열정, 활동 및 기업에 관한 정보 숙지, 콘텐츠 제작 능력

❖ **주요 활동** : 주로 하나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MZ세대에 하나금융그룹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기도 한다. 나아가 하나금융그룹 관련 서비스상품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기간 동안 3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 **추천합니다!**
윤예린 학우 (레저스포츠산업 20) “제가 이전에 했던 활동은 모두 스포츠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활동은 정말 체육 전공 외에 다양한 전공에 사람들이 고루 지원합니다. 덕분에 제가 몰랐던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제게 ‘대기업 대외활동은 진인 장벽이 높아 보여 쉽게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활동에 한국체대 사람은 지박이 없었지만,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대외활동에 참여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지 말고 지원해보면 좋겠습니다.”

❖ **기자의 눈** (*10인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취함)

대외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

1. 학교와 하는 의지와 열정
2.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3. 여러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사회성(친화력)
4. 결과물 제작을 위한 뉴미디어(영상, 포토샵) 기술

대외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1. 다양한 경험을 통한 시야 확대
2. 타 대학·인적 네트워크
3.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4. 본·교 실무에 대한 직함성

대외활동, 어디서 찾아야 해요?

1. ‘캠퍼스팩’, ‘속사’ 등 대외활동 및 공모전 사이트
2. 학교 봉사자들과 각종 동아리 홈페이지
3. 네이버 카페 ‘스펙업’, ‘스포츠알리리’
4. SNS 팔로 및 선배들의 추천

❖ **기자 생각**

10인의 소중한 경험담을 듣고...

대외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다. 스펙, 자기소개서 내용, 인적 네트워크 등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명함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스스로 필생의 선택을 할 때 자신의 경험과 시야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이

라면 용기 내어 도전해보면 좋겠다.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스로 미래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사람 역시 존재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끝으로 우리 학교 후배들과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해준 10명의 학우 및 동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0명의 학우가 남긴 진심 어린 조언이 우리 한국체대 학생들 가슴 깊은 곳에서 달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한지용 기자 201971033@mk365.knsu.ac.kr